



"배우가 돋보이는 영화를 하고 싶었다"는 윤종빈 감독. 네 번째 연출 영화 '군도'에서 하정우, 강동원과 손잡고 화려하고도 활기 넘치는 액션 시극을 완성했다. 박희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seven7sola

배우의, 배우에 의한, 배우를 위한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 윤종빈 감독

하정우와 벌써 4번째...역시 천의 얼굴 강동원은 '상남자'...검술 연습만 5개월 비트·룩키처럼 배우 맛있는 영화 추구

새로 내놓은 영화로 한창 흥행을 잇는 감독에게 성급한 질문부터 던졌다. '다음 작품은 무엇이나'고.

'군도:민란의 시대'(이하 '군도')의 윤종빈(35) 감독은 망설임 없이 "확실한 건 또 액션영화는 아니다"고 했다. 액션영화 '군도'를 기획하고 촬영해 개봉하기까지 보낸 2년이 꽤 혹독했던 듯 했다. "다음엔 이야기가 강한, 작은 규모의 영화를 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군도' 흥행과 별개로 이미 차기작 구상을 어느 정도 마쳤다는 의미였다.

자기만의 확신 혹은 욕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연출 행보다. 비슷한 흥행 감독들과 견줘 이른 나이인 30대 중반에 제작비 170억 원 규모의 '군도'를 내놓은 자신감도 재능을 겸비한 추진력에서 나온다.

'군도'는 윤 감독의 네 번째 연출 영화다. 더불어 가장 규모가 큰 대작이다. 조선 말, 탐관오리의 폭정에 시달리는 민초들의 이

야기를 경쾌하게 풀어낸 그는 "내 안에 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도 집에서 누워 있는 걸 좋아하지만(웃음) 분명 마음속엔 흥이 있다. (앞서 연출한) '용서받지 못한 자'나 '비스티 보이즈' 때는 뭔가 주제를 담으려고, 사실적인 리얼리티에 치중했다. 그런데 그게 내 전부는 아니다."

2년 전 최민식·하정우와 함께 했던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는 흥행과 더불어 윤 감독에게 '군도'를 시작하게 할 기회와 환경을 마련해줬다. 게다가 변화도 했다. 당시 편지를 받았던 김상범 편집감독은 윤 감독에게 물었다. '감독을 하기 전에 어떤 영화를 좋아했느냐'는 질문이었다. "문득 돌아보니, 내가 좋아했던 영화는 누구보다 배우가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비트'의 정우성, '룩키'의 실버스타 스타일로 같은. 그 질문을 받은 뒤에 영화를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졌다. 어쩌면 이야기 마저도 배우를 받쳐주기 위한 명분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런 변화는 '군도'에 그대로 드러난다. 때문에 윤 감독의 오랜 팬들은 그가 '달라졌다'고 한다. 이를 예상 못한바 아니었던 그는 "연출적인 자의식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배우가 맛있는 영화를 해 보고 싶었다"며 "(관객이) 배우에게 열광하고, 그래서 그 배우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영화이길

바랐다"고 했다. '군도'의 하정우와 강동원은 그렇게 탄생했다. 벌써 네 편을 함께 한 하정우를 두고 "뭘 맡겨도 잘하는 천의 얼굴"이란 평을 내놓는 윤 감독은 처음 만난 강동원에 대해선 할 말이 많은 듯 했다. "많이 가려져 있는 배우다. 실제론 투박하고 어떤 땐 '촌놈' 같은 느낌마저 든다. 좋은 의미에선 상남자 스타일이다. 검술을 5개월간 연습했다. 그 만해도 될 텐데 '어마무시하게' 하더라. 집요하고 성실하다. 게다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말 잘 생긴 외모까지 있잖나. 하하!"

'군도' 출연 배우 대부분은 윤종빈 감독보다 나이가 많다. 하지만 그 배우 대부분은 윤 감독을 향해 "현장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장악력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이견이 거의 없다. "많이 힘들었다.(웃음) 작년 여름을 관통하며 '군도'를 찍었다. 8월 초엔 정말 미치겠더라. 힘드니까 술도 못마시고, 촬영장 근처 PC방에서 게임하며 버텼다."

감독을 꿈꾸기 전, 그에게 '로망'과도 같았던 세 명의 배우는 최민식과 한석규, 정우성이다. 이미 '절친'이 된 최민식은 차치하고, 훗날 윤 감독이 한석규, 정우성과 보여줄 '미지의 그림'에도 '막연한 기대'가 생겼다. 이혜리 기자 g01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군도' 하정우-강동원 효과? 개봉 5일 만에 300만 돌파

올해 최다 일일관객 동원 기록도 5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군도:민란의 시대'(이하 '군도')가 주말 극장가를 갈라챘다. 23일 개봉 이후 첫 주말이 끝난 27일까지 300만 명을 모아 올해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군도'는 토요일인 26일 하루 동안 86만8342명을 동원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중 최다 일일관객이다. 동시에 한국영화를 통틀어 2013년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세운 91만902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군도'의 초반 흥행 분위기는 개봉 전부터 감지됐다. 예매율이 70% 가까이 올랐고 특히 스타 배우 하정우와 강동원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런 반응을 드러내듯 첫 주말인 25일부터 27일까지 '군도'는 약 1400개의 스크린을 씩씩이하며 사실상 독주를 펼쳤다.

여름 극장가에 나선 100억 대작 4편 중 가장 먼저 개봉한 '군도'가 기선을 제압한 가운데 이후 공개되는 '해적:바다로 간 산적' 등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혜리 기자

ON AIR 오후8시20분 백일섭의 그때 그 사람

200억 자산가로 성공한 가수 방미

1980년대 인기가수에서 2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업가로 변신한 방미. 그가 어떻게 2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백일섭이 직접 찾아가 성공 비결을 들어본다.

28일 오후 8시20분 방송하는 채널A '백일섭의 그때 그 사람'에서는 방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들이 공개된다. 방미는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고3때부터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야간업소에서 노래는 물론 무명의 MC로 활동하며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았다"고 털어놓는다. 하루평균 2시간만 잠을 자고, 그의 모든 시간에는 일을 하는 일명 '악바리'처럼 살았다. 방송국에서는 '소문난 구두쇠', '짚순이'로 불리며 20대의 나이에는 절대 이를 수 없을 것 같은 4채의 집을 가지게 됐고, 그때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 현재의 200억 자산가의 사업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성공 뒤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과거도 있다. 80년대 후반 '날 보러 와요' '올 가을엔 사랑할 거야' 등으로 승승장구한 그는 "당시 들던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다"고 말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lar

연예가 주간 브리핑

'슈주' 이특 내일 제대...전역행사 생략



●29일=2012년 10월30일 입대한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사진)이 이날 제대한다. 이날 부대 앞에서 팬들과 만나는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히 전역할 예정이다. 이특은 제대 후 짧은 휴식기를 갖고 슈퍼주니어 정규 7집 준비와 월드콘서트 '슈퍼쇼'로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30일='왓펠트'(HA:TFELT)라는 예명으로 솔로가수로 첫 발을 내딛는 원더걸스 예은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청담동 갤러리원에서 특별전시회 '미?(Me?)'를 연다. 이날 전시회는 31일 솔로 앨범 발표 하루 전에 재킷 이미지와 메이킹 사진 등을 먼저 관람하고 수록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31일=JYJ가 대형 무료 팬 박람회 'JYJ 멤버십 워크'를 이날 시작한다. 8월3일까지 서울 코엑스 C, D홀에서 열리는 '2014 JYJ 멤버십 워크'는 1만6500m²(약 5000평)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보다 더 크고 화려해진 콘텐츠들로 꾸며질 예정이다. 멤버십 워크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는 JYJ 컴백 쇼케이스도 열린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2357

2015년형 007스파이 적외선 시계 캠코더

16GB 대용량 최고화질, 방송, HD영상 30프레임, 동영상 촬영, 동시녹음
불빛이 전혀 없어도 적외선으로 영상을 찍는다!

일찍 보기에는 영락없는 보통 손목시계이지만 녹음은 기본, 동영상 촬영 및 야간촬영이 가능하며 야간촬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불빛이 없는 어둠속에서도 눈치 채지 못하게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은 메모리 16기가로 48,000장까지 저장 가능하다. USB로 연결시 이동디스크 인식!
 업무상 비밀녹음, 녹화가 필요한 사람이나 역을 할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증거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쓰레기 무단 투척, 불법선거운동, 환경오염, 계약위반증거자료 불법행위 증거자료등 수집이 가능하다.
 적외선 시계 캠코더는 사용방법이 간단하여 손목에 차고다니다가 필요할때 언제든 남이 모르게 녹음 및 촬영이 가능하므로 분쟁이 많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인기를 끌고 있다!

월 29,000원부터 구입 가능! ※A/S발생시 신제품으로 교환 가족밴드, USB 케이블, 충전기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

문의: 1899-3177 / 02-474-8822

2015년 최신형! 전기자전거

노약자 주부 학생 교통수단 레저용 대인기

월 35,800원 日本시마노6단기어 장착

레저스포츠시대의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는 것이 하이브리드 접이식 전기자전거이다. 먼저 자전거는 오토바이에 비해 가볍고 보관, 이동이 용이하고 편리하다. 출퇴근시, 장 볼때나, 등·하교 및 레저용으로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가까운 거리 교통수단으로 인정받았다. 힘들게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고, 접이식 전기자전거라 보관이 용이하다. 4-5시간 한번 충전해서 시속 20KM/hr로 40KM는 주행할 수 있다. 일본 시마노 6단기어장착으로 월등한 기어변속이 가능하고, 고휘도LED헤드라이트 장착으로 밝고 선명하게 야간에도 달릴 수 있다! 전기료 월 2000원

★ 신축은 100분개! 콘솔박스, 비상용공기주입기 무료증정! ★

제이모터스 문의: 1588-4491 / 02-474-5555

뉴디지털 발기콜펜티

- 수술없이,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우뚝 서지않고, 섣타가도 빨리 시들어서 고민하는 남자, 통증 없게, 길고, 굵고, 단단하게 우뚝 서고, 빨리 안죽게 꼭꼭 안루고, 혈액을 많이 올려서 길이 길어지게 하는 특허품 팬티.
- 누구나 즉시 우뚝 안서고 빨리 시들면 환불. 표시 안나 모른다.
- 자연처럼 통증 없게 우뚝 선다.

* 발기콜펜티+15센치길게=20만원

러브콜통타임

- 수술아니다. 링, 반지처럼 아프게 꼭 묶는 것 아니다. 표시 안난다. 아내도 거부 안한다. 실물과 똑같다. 길이 길어지고, 단단하게 우뚝선다. 특허품. 자연산보다 느낌이 더 좋다.
- 우뚝 안서고 빨리 시들면 환불.

* 러브콜=15만원 * 무병장수배개=15만원

010-9607-9970 · 010-2762-2540
 농협 352-0679-5770-03(구인옥)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통신통동구 2013-0738호

영원한 동반자 "담비" 독신자들의 꿈과소망 대박상품

공기주입형 사이즈:168cm

두겹으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튼튼함 부드러운촉감, 뛰어난 쿠션감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내 여인 휴대, 보관이 간편함 궁금하신분은 방문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제품구입분은 고급 사은품을 드립니다.

저희제품을 사용하셨거나 사용하고 계신분께 특별한인 행사 하오니 상담원에게 문의하세요!

저렴한 "동반자 미니" 출시 정액팬티와 푸딩하고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올강타고 그랜드야

친절한 전화상담 010-7799-2818, 010-3412-3044
 공장직영(경원 완구인형 전문제작)
 입금계좌 : 기업은행 333-044182-04-014 (비계이클로뱅크)
 상단주소창에 BK007.kr을쳐주세요
 AS시스템 완비 통신통동 0464호